

## 68. 분별하는 것, 찬양 그리고 천국의 짧은 경험

2015.05.08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오늘밤 주님께서서는 저희 모두에게 분명한 분별력과 이해력으로 축복해주세요. 저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에 들어갔고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은 정말 아름다워요. 주님이 분명하게 잘 보여요.

(예수님) 왜 그렇지 않겠어? 이것은 우리의 결혼식 춤의 연습이야.

(클레어) 진짜 결혼식을 위해서요?

(예수님) 그래 내사랑아, 곧 있을 진짜 결혼식을 위해서.

(클레어) 용서해주세요 주님, 저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초조해져요.

(예수님) 그래 나도 알아. 나도 그래.

(클레어) 정말요?

(예수님) 그래, 정말로. 나의 신부들을 나의 품에 안고 그들이 나와 영원을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느 신랑이 초조함을 느끼지 않겠어?

(클레어) 그럴것 같아요.

(예수님) 오, 클레어, 너와 모든 나의 신부들은 너희 모두가 얼마나 사랑받고 존중받고 영예를 받는지 전혀 알지못해. 조금도.

(클레어) 그런것 같아요.

(예수님) 이것은 너의 상상 이상을 초월해.

(클레어) 네, 그래서 저의 상상을 제한하려고 해요. 저는 그 꿈의 나라에서 떠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오, 내가 그 꿈의 나라로 너를 데리고 갈게!

(클레어) 주님은 항상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적어도 저의 어리석은 소녀같은 상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전정으로 행복하고 천국이예요.

(예수님) 너는 너무 소심해.

(클레어) 소심해요!?

(예수님) 그래, 소심해.

(클레어) 주님께서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하신말에 동의해야할 것이에요.

(예수님) 오, 그래, 너는 소심해. 나는 너를 만나기위해 절반도 아니고 2/3도 아닌 80%까지 너에게 가야되. 너는 정말 소심해.

(클레어) 그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더 담대하게 주님께 다가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수님) 오 그래, 더 많이 담대하게!

(클레어) 와! 저는 담대하곤 했었는데요. 저에게 무슨일이 일어난거죠?

(예수님) 너는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토끼를 귀엽고 작은 집토끼로 만든 남자와 결혼했어.

(클레어) 저는 토끼들을 좋아해요!

(예수님) 나도 알아. 왜냐하면 토끼들은 너처럼 소심하기 때문이야.

(클레어) 알겠어요.. 그리고 새끼사슴두요. 저는 사슴과 새끼 사슴도 좋아해요.

(예수님) 봤지! 다시 소심한 동물이네!

(클레어) 하지만 저는 사자와 호랑이 그리고 퓨마도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천국에서 그들을 꺼안을 수 있는 동물들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증명하였어요. 저는 소심해요.. 저의 달콤한 배우자 주님, 오늘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예수님) 너와 나에 대해서.

(클레어) 오!

(예수님) 천국에서의 결혼과 나와 함께하는 것은 어떨지? 그것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클레어) 육체적으로요? 아니면 영적으로요?

(예수님) 영적으로.

(클레어) 하지만 지금도 저희는 절대로 서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 그래, 하지만 지금 너는 항상 나와 접촉할 수 없고 너는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것은 과거의 일이 될 거야. 너의 생각들로 나를 접촉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너의 앞에 있을 거야.

(클레어) 와! 저는 그것이 좋아요. 하지만 저는 성가신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너는 적절함을 배우게 될 거야. 즉 나와 하나가 되는 것과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야. 너는 나로 가득차있기 때문에 접촉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거야. 너는 찬양에 이끌릴 것이고, 찬양 안에서 우리의 임재의 달콤한 행복에 머무르게 될 거야.

우리는 많은 일대일의 개인적인 시간을 함께 보낼 거야. 함께 어디든지 갈 거야: 바위 오르기, 등산하기, 하이킹, 승마, 피크닉, 카누타기, 비행하기, 수영하기. 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고, 나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너무나 많아.

(클레어) 하지만 지구에서 해야 할 일들에 비추어볼때 이것은 사소한 일들이지 않아요?

(예수님) 나의 임재가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반드시 너는 나를 더 철저하게 알아야해. 너는 나를 그들에게 데려갈 것이고, 너가 나를 더 잘 알수록 너는 그들에게 나를 더 잘 데려갈 거야. 게다가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은 중요해. 다시 만드는것(Recreate). 삶에 대한 너희들의 관점을 열어주고, 내가 너희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든 풍요로움과 다양성 안에서 너희들을 기쁘게 해줘.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야.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 우리는 그들의 반응과 그 안에서 찾은 그들의 기쁨을 소중히 여겨. 나는 너가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너는 그들에게서 모든 너의 기쁨을 찾기 시작했어. 그래, 이것은 아름답고 칭찬할만하며 나와 매우 닮았어.

모든 영혼들은 창조된 것들, 사람들도 지나가며 오직 나에게로 오는 여정을 이어나가. 너는 내 안에서 행복해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아서 너의 궁전을 지었어.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이것은 창조된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너희들에 대한 나의 작은 사랑의 표시일뿐이야. 이것은 갈보리까지 가게하였어.

(클레어) 오 주님,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저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생각도 하고싶지 않아요.

(예수님) 내사랑아 나도 알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하고 적절한 선물일때도 있어.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통을 겪으면서 너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한다는 것을 이해해.

(클레어) 네 주님.

(예수님) 그렇다면 기억해라. 너와 각각의 모든 영혼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같보리로 돌아가게해. 이제 천국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천국에는 너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과 깨달음의 차원이 있어. 내가 너를 찾아가 어둠의 왕국에서 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옮기던 그 날밤에 경험했던 것과 같이.

(클레어) 오 네. 그것은 정말 큰 경험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육체와 영혼의 황홀감이 45분동안 지속되었어요.

(예수님) 그래, 천국에도 그러한 차원이 있고, 그곳에서 너는 항상 그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어!

(클레어) 오! 그것은 정말 산만하게 만들 거예요.

(예수님) 그렇지 않아. 너는 그 상태에서 기능하는법을 배우고, 너가 만지는 모든 것은 너의 그 축복의 일부를 받아. 오, 너는 무엇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 모든 창조물들의 하나됨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사랑을 어떻게 차원간으로 소통하는지.

(클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음, 식물은 한 차원에서 소통하고, 고양이는 다른 차원에서, 바위는 또 다른 차원에서 소통해. 하지만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로 묶는 사랑은 모든 종류의 사이를 결속시켜. 즉, 너는 모든 창조물들과 말하고 그들은 너의 말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도 너에게 말하고 너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되.

(클레어) 오! 전능하신 하나님인 주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요!

(예수님) 그래, 우리는 찬양 속에서, 계속해서 찬양하는 축복 속에서 함께할 거야. 나의 모든 창조물들은 축복하는 찬양으로 나와 함께 결합되어 있어. 내가 너를 찾아가던 그날 밤과 찬양시간에 너가 너 자신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천국으로 옮겨졌던 것을 제외하고는 너는 그러한 것을 경험한적이 절대로 없어.

(클레어) 와. 주님 이것은 정말 놀라워요. 제가 여기서 잠시 멈추고 쉬어도 될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이 1시간의 긴 낮잠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컷속말로)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어.

(클레어) 주님께서서는 저를 기다리는데 지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그래, 나는 바로 여기 너의 옆에 있었어. 클레어, 때때로 나는 단지 너와 가까이 있고 싶을때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는 나의 창조물들을 즐길 수 있어.. 심지어 그녀에게 다가오게 될 일들에 대해 그녀의 믿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클레어) 오,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신 것에 제가 의문을 가질때 그것이 정말 싫어요.

(예수님) 어쩔 수 없어. 너는 공격받고 있어.

(클레어) 주님께서 제가 그들을 내쫓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였어요. 하지만 저는 주님께 그들을 내쫓아달라고 요청했어야 했어요. 주님께서 그 힘을 가지고 있으세요!

(예수님) 하지만 나는 또한 너와 그들 사이의 전투를 즐기고 있어. 나는 너의 그릇 가장 깊은 곳에 작은 균열을 보았고 그들도 그것을 보았어.

(클레어) 갑자기 저는 제 자신이 커다란 물그릇과 같이 보였고 맨 바닥에서 균열을 통해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 주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찬양. 많고 많은 찬양.

(클레어) 그래서 저는 한시간 정도 다시 찬양을 하였고, 찬양 중에 천사님이 오셔서 저의 눈을 뜨게하셨고 제가 성자들과 천사님들과 함께 천국의 궁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 앞에 서셨어요. 주님은 빨간 옷을 입고 계셨고 저의 눈을 바라보셨어요.

(예수님) 클레어, 나를 믿지 않아? 나는 너가 믿어주기를 원해.

(클레어) 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저의 직감의 깊은 곳에서 저를 끌어당기는 무엇인가가 모든 의문을 불러일으켜요.. “어느것도 사실이 아니야. 너는 속았어. 그래서 이 생각이 떠나가지 않는 거야. 이 말은 너의 직감이 하고 있는 거야. 나에게 집중해! 내가 항상 옳지 않아?”

저는 눈물이 주님의 불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주님, 이 지독한 불신의 영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저는 무엇인가를 보고 직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저의 믿음이 저에게 한가지를 말하면 저의 직감으로 지각하는 것이 그 말을 반대하는데요? 제가 어떻게해야 할까요? 제발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제 이마에 입을 맞추셨어요.

바로 그때에 에스겔이 그의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저와 함께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렸어요. 에스겔은 제가 주님의 뜻안에 있어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의 다른 일들에서 저를 멀어지게하는 산만함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압도하였어요. 저는 어리석었어요.

저는 에스겔에게 만약 시간이 계속되어지고 주님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으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았어요. 에스겔은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을 계속해서 하면되. 우리에게는 해야할 일들이 정말 많아.”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확실한 것 한가지는 마이애미에 핵폭탄이 떨어진 직후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예요. 주님께서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셨어요. 하지만 이 사라지지 않는 직감이.. 이것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에스겔은 말했어요..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자. 해결될 거야.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별력이야. 새로운 수준, 새로운 악마들.” 저는 다시 찬양으로 돌아갔고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내 사랑아, 너는 나를 기다려야 할 거야.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야. 나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지만 이것은 고통이야. 나를 기다려라. 하지만 나는 너가 믿음이 있다고 말해. 너는 시험을 받고 있어. 너의 마음에 너가 알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나머지는 내려놓아라. 이제 너가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속히 내가 너에게 진리를 분명하게 알려줄 거야. 일어서라. 너가 모든 것을 다했을때 나는 너에게 일어서라고 말해.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야. (히브리서11장1절 참조) 너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렇지?

(클레어) 네

(예수님) 그리고 너는 가지고 놀림을 당하고 있어. 이것은 너의 커버(에스겔)가 말한 것처럼 산만한 것이야. 내가 항상 에스겔에게 너를 인도할 지혜를 주지 않았어?

(클레어) 네 주님. 주님께서서는 정말로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굳게 붙잡고 그 직감을 씻어내버려라.

(클레어) 감사해요 주님. 저는 이제 이것에 평화를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가지고 놀림을 당했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눈을 떼지 말아라. 너가 일을 진행시키고 있을 때 적들은 너를 늦추기 위해 장애물들을 세우려고해.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것들이 분명해질 거야. 하지만 지금 모든 답을 얻기위해 너가 고군분투를 한다면, 너는 길에서 벗어나고 너의 집중을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다루어지지 않게 되. 그러니 내사랑아, 계속해서 일해라. 너는 나를 매우 기쁘게 하고 있고, 뒤틀려진 너의 믿음은 너가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멈추게 하기위해 지나치게 부풀려진 산만함일뿐이야. 그건 그렇고 그들이 몇 시간동안 방해하였어?

(클레어) 6시간이요?

(예수님) 너도 보다시피 그들은 성공하였어. 이제 너는 더 잘 알거야. 그들이 다시는 이런일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라. 그리고 나의 모든 신부들에게도 말해: 너희들의 모든 집중을 끝기 시작하는 해소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적들이 너희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한가지 지표는 이전에 잘되어지고 있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너희들의 믿음이 제자리에 있었고 너희들은 평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갑자기 너희들에게 중요한 일들에서 멀어지게하는 심각한 의심을 가지기 시작해. 너희들은 그것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혼란스러운 정지상태에 빠지게되. 그것은 악마의 것이야.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것은 육체와 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영들, 거짓 영들이 보내어져 혼란케하고 의심하게하여 믿음을 약화시켜 너희들을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클레어) 하지만 저는 '구속의 기도'를 기도하였는데요? 그들은 그 기도안에 포함되어있지 않나요?

(예수님) 너가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기도하라고 찢렸던 것 기억나?

(클레어) 오.

(예수님) 그리고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클레어) 맞아요.

(예수님) 하지만 내사랑들아, 기도를 넘어서서 그 순간에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너희들 자신을 그 문제에 가두고 씨름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확실히 너희들의 길을 벗어나게 하려는 유혹이야.

내 사랑아, 이제 너는 자유로워졌어. 계속 진행해라. 너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아.

나는 이제 너희들이 단호하게 나를 기다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줘. 거기에 더하여 너희들의 믿음을 좌절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는 역동을 주의깊게 살펴봐라. 너희들의 인내심을 방해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오늘밤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희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라.

나는 너희들 모두를 정말로 사랑해! 테이블은 세팅되었고 음식은 준비되었어. 곧 우리는 연회장에 함께 앉아 있을 거야.. 곧.